

"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삶"

수난에 대해서 성 호세마리아께서 하신 묵상.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. 바로 예수님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체험하는 기회입니다.

2025-4-14

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. 바로 예수님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체험하는 기회입니다.

이 시기의 특징은 신심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. 그런 표현들이 우리 마음에 불러오는 것들은 예외 없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향합니다. 그분의 부활이야말로 바로 성인의 말씀대로 우리들 신앙의 밑바탕입니다.

하지만 우리는 이 여정을 너무 서둘러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매우 간단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안에서 그분과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더불어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.

성주간의 말미에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, 우리는 우선

번제물이 되신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
진실로 주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.
그분이 갈바리아산에서 돌아가셨을
때 말입니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geuriseudoyi-jugeumeun-geuriseudoinyi-
salm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geuriseudoyi-jugeumeun-geuriseudoinyisalm/) (2026-1-20)